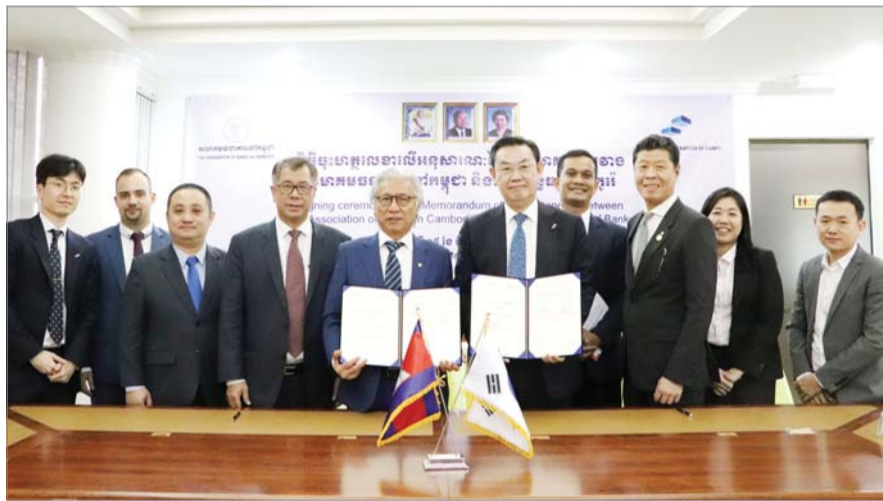




중소사랑나눔재단, 중증장애인과 나눔이 봉사활동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합봉사단 24명이 지난 16일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가연마을을 방문해 봄맞이 나눔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봉사단은 또 평소 외부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함께 김포 월곶면에 위치한 버드몽 테마파크를 방문해 동물원 관람 및 공원산책 등을 하고 쌀 40포대, 생활용품 등 3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사랑나눔재단



은행연합회,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교류협력 추진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신남방 진출을 위해 캄보디아·말레이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캄보디아와 협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은행협회 연수 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올해부터 3년동안 캄보디아 은행 및 은행협회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지급결제, 핀테크, 리스크관리 등의 연수를 제공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왼쪽 여섯번째)이 분인 캄보디아 은행협회 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포즈를 취했다. /은행연합회



농협은행, 기업고객 임직원 초청 '장 담그기 행사'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경기 양평군 지평농협 전통장류센터에서 기업고객 임직원 가족 80여명을 초청해 "농심(農心) 가득 장(醬)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양평에서 자란 국내산 메주콩을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장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올해 12월에 직접 만든 장을 배송받기로 해 참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NH농협은행 유운대 부행장(가운데)과 기업고객 임직원 가족들과 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한국지엠, 부평서 환경보존 활동 진행
 한국지엠은 '2019에코 프렌들리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한국지엠은 지난 16일 '1사 1하천 가꾸기' 기념식을 갖고 한국지엠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부평구 관내 골포천 주변 쓰레기수거 하천 생태 복원 등 보존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엠 임직원 및 직원가족, 공무원, 지역 환경단체 회원 및 지역시민 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지엠



김민 소장의
 탕탕평평

갈등(葛藤)이란 '취 갈'자와 '등나무'자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을 말한다. 취나무와 등나무는 그 줄기가 반대로 감겨있다고 한다. 하나는 시계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감겨진다. 이 둘을 합치려면 당연히 꼬이지 않겠는가. 기업체 등 사람이 모이는 수많은 조직에서는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최근 필자는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갈등관리를 주제로 적잖은 강연을 다지고 있다. '갈등관리'라는 것이 결국 소통과 리더십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편한 상황에 부딪히는 게 세상 살이다.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무조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어떤 소통과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모국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에 따라 이해의 척도와 사용하는 언어의 느낌이 달라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언

갈등관리

어만 사용하면 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의도를 상대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상대의 의도 또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사실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다. 갈등의 대부분은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제대로 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의 첫 번째는 경청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리더십도 생기고 그 리더십의 힘으로 조직과 세상은 돌아가게 된다. 어쨌든 갈등은 해결하라고 생기는 것이고 그냥 꼬여버리라고 생기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부모자식 사이에는 형제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회생활이나 여타의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오죽하겠는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듣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경청이 아니다. 상대의 의도를 최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의 모든 갈등은 서로가 상대의 말을 제대로 경청만 해도 절반은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사람들은 스피치 즉 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동호회나 스터디를 만들어 공부까지 한다. 통역과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뭘지 부자연스럽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동시통역사들이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을 공부할 때도 대부분은 듣는 수업과 연습을 하지 말하는 것을 우선하지는 않는다. 듣고 쓰고, 듣고 쓰고를 상당기간 반복한다. 서로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각자 그럴싸하게 스피치만 잘한다면 그것이 관계에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또 말하는 것만 배우려 하지, 듣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도 발생한다. 생각과 성향과 목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그 해결은 소통 즉 경청의 기술을 제대로 터득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거나 된다 하더라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리더십을 운운하는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서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즉 경청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누구나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치듯이 갈등과 소통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메일리폴리 정치연구소장

현대백, 임직원 봉사활동 확대... "올 2만시간 목표"

65개 사회복지기관과 결연 매월 정기적 봉사활동 추진

현대백화점이 올해 2만 시간을 목표로 임직원 사회봉사활동에 나선다.

17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백화점 임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만8240시간을 기록했다.

사측은 "지난해 약 1200명의 임직원들이 4500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1만 8000시간은 비행기로 지구를 약 420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임직원과 고객으로 구성된 '파랑새 봉사단'을 통해 65개 사회복지기관과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뽕만들기 봉사', '청각장애아동을 위



현대백화점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 자막 입력 봉사', '재활용 크레파스 제작' 등이다.

'뽕만들기 봉사활동'은 '파랑새 봉사단'이 수제뽕 200~300인분을 만들어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에 전달하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연간 30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서울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와 결연을 맺고 청각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 교육 영상 20개에 임직원들이 직접 한글 자막을 입력하는 봉사활동을 다음달부터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고용노동부** ◇고용공무원승진 △중양노동위원회 위정장 송병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정장 마성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임승순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상용 △일학습병행정책과장 금정수 △고용차별개선과장 오영민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서울고용센터소장 이덕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황종철 ◇과장급 파견 △사회정책협력관실 이강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 전보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파견박상욱 ◇4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주식 △고객지원팀장 신제욱
- ◆**전남 장성군** ◇4급 전보 △행정복지지국장 안영갑 △경계건설과장 직무대리 박홍수 ◇5급 승진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5급 전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석호 ◇5급 승진의결 △기획담당관실 안광수 △일자리경제과 임해만 △교통정책과 이상훈 △산림정책과 서순평 △도시재생과 박준순

부음

▲인달명 씨 별세, 구광모(전 백산치과 원장)·현모(정후 회장)·원모(전자신문 회장)·용모(금관 사장)·인모(정진물산 사장)·영순·영화·영숙(구치과 원장)씨 모친상, 이효운(전 대우주택 사장), 김두성(안양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전 예성총회장)씨 빙모상, 조문희(예정교회 담임목사)씨 시모상

= 16일 오전 6시 12분, 서울성모병원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10시 02-2258-5940
 ▲이주홍(전 서울중앙지법원장)씨 별세, 근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근호(법무법인 일호 변호사) 부친상 = 16일,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61
 ▲이경채 씨 별세, 이관도(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실 팀장)·인선·길도(정도측량 대표)·상운(자영업)씨 부친상, 김형석(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광주홍보팀 차장)씨 장인상 = 17일 0시 28분, 전남 해남군 국제장례식장 본관 1호실, 발인 19일 오전, 061-536-4494
 ▲양범조씨 별세, 양해자·양해만(한국투자신탁운용 부사장)·양이화·양순화·양정화씨 부친상, 김재호·김영주·마인재씨 장인상, 이숙희·박혜진씨 시부상 = 17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053-560-9552